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소식지 (2018. 11.)

제 3 호 일립 간호

BIBLE NURSING NEWS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4 길 32



070-4275-0163



02-950-5401

간호학과 교육목적

간호학 교육과정은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 양성이라는 본교 교육 목적 아래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 및 회복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인성과 영성을 기반으로 간호과학 및 인접 학문에 근거한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학과 교육목표

1.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2. 다양한 교양지식, 전공지식과 간호술을 통합하여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3. 대상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대상자 및 타 전문분야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4. 대상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분야와 협력한다.
5. 간호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시 다양한 사고기술을 적용한다.
6. 전문직 간호직업관을 확립한다.
7.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8. 근거기반 간호실무 수행을 위해 간호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9.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응한다.
10.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1.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는다.
2. 간호 과학 및 인접학문의 지식과 술기를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3. 대상자의 건강문제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4. 대상자의 건강목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전문분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와 협력한다.
5. 간호 과정에 창의적 사고 및 비판적 추론 기술을 사용한다.
6. 간호 전문직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간호 상황에 적용한다.
7. 간호 실무 현장에서 적용되는 간호 리더십을 발휘한다.
8. 근거기반 간호 실무를 이해하고 간호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9.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이해한다.
10.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교육을 시행한다.



제 6 회 간호학술제

2017년 11월 16일 제 6회 간호 학술제가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학술제는 3학년 학우들의 논문발표 4편과 포스터 3편, 2학년 학우들의 보건교육 포스터 전시로 구성되었다. 사회는 김예나 학회장이 맡았고, 강규성 교목실장의 기도와 강우정 총장의 격려사로 막을 열었다. 허은정 외 5명의 논문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진주 외 6명의 논문을 포함한 4편의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나머지 3편의 연구는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김조자 교수는 총평에서 "4편 모두 주제가 신선했고 연구방법과 통계수준 향상도 고무적이다. 반면 통계에 비중을 더하다보니 변수 설명이 아쉬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논문 발표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우수 논문상을 차지하였다. 논문 포스터는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와 DNR에 대한 인식 및 윤리적 태도'가 최우수 포스터로 선정되었다.

<구두발표>

- ▶ 간호대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허은정 외 5명/ 지도교수 최은희
- ▶ 간호대학생의 외모만족도가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진주 외 6명/ 지도교수 안현미
- ▶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하영 외 5명/ 지도교수 김정숙
- ▶ 노인의 낙상 건강 신념과 낙상 지식 및 낙상예방행위가 낙상 두려움 여부에 미치는 영향/ 정소영 외 5명/ 지도교수 장인순

<포스터 발표>

- ▶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와 DNR에 대한 인식 및 윤리적 태도/ 박혜선 외 6명/ 지도교수 고미숙
- ▶ 일반간호사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이현지 외 6명/ 지도교수 유하나
- ▶ 간호사와 일반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입원간호요구도 비교/ 장유리 외 6명/ 지도교수 이소정

5년의 퀘거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간호학과 5회 졸업생 46명 중 의료편입 2명을 제외한 44명이 1월 26일 제 5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했다. 영하 18도에 달하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간호학과 학우들은 이른 새벽부터 고사장 앞에서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8학기 동안 총 90학점의 전공수업과 1000시간 이상의 실습을 통하여 익힌 전공지식을 총평가하는 시험이다. 지난 졸업생에 이어 이번에도 졸업생 전원이 이미 대학병원과 국공립의료원 등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국가고시에 100% 합격하여 5년 연속 합격의 퀘거를 이루며 기쁨을 나누었다.

Faith Training

2018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수리에 위치한 수양관에서 F.T.(Faith Training)가 진행되었다. F.T.의 교육목적은 2박 3일동안의 공동생활 및 훈련을 통해 밀알정신 습득과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모든 재학생과 교수, 직원이 참여한다. F.T.에서는 말씀과 찬양 집회뿐 아니라 총학에서 준비한 레크리에이션, 전도반 별 모임 그리고 학과 별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간호학과 모임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소개를 시작으로 1학년 학우들의 자기소개 및 장기자랑, 간호학회에서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고 4학년 학우들에게 축하 및 선물증정을 하였다.

마지막 날 간증시간에 김예나(간호, 4)학우는 "나에게 F.T.는 1학년 때는 학과모임과 전도반 별 모임을 통해 어색했던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

회였다. 2,3학년 때는 학회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섬기는 기쁨을 느끼고 모든 일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음을 알게 된 계기였다. 4학년이 되어서 F.T.는 전공수업이 없어서 잠시나마 피난처가 되어 행복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시간들이 소중했다. 이 훈련이 누군가에게는 오기 싫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서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한다." 라는 4년간 F.T. 참가 소감을 말하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8년 5월 3일, 밀알관 로고스 홀에서 제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되었다. 강우정 총장, 상계백병원 조용균 원장, 전 대한간호협회장·현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김조자 초빙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3학년 학생들이 모두 복음전도자들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문인이 되어 주길 격려했다. 상계백병원 조용균 원장과 김조자 교수는 기본에 충실하며 이해와 노력,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증거자가 되어 달라며 간호사로 부른 소명에 따라 생명을 돌보고 헌신해 주길 축사하였다.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51명의 예비간호사들은 촛불을 들고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문을 낭독하였다. 이에 간호학과 1학년 후배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해주었고 강규성 일립교육부장의 축도로 폐회하였다.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간담회

2018년 9월 21일 밀알관 고승태 홀에서 2018년 졸업 예정인 학우들을 축하하기 위한 총장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장 초청 간담회는 학우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우리들의 다짐을 통해 4학년 학우들은 사회에서 복음전도자로서 성장하는데 힘쓰겠다는 선서를 하였다. 1학년의 이예린 학우의 반주에 맞춰 김호경 외 11명의 특송이 있었고 임현필 목사의 기도를 끝으로 간담회가 마무리되었다.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간호학과 4학년 윤가형

먼저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준비를 해 주신 기획실에 감사드립니다.

늘 멀게만 느껴졌던 간담회였는데, 졸업예정자로서 간담회에 참석하니 이제야 4학년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총장님, 김조자 교수님 그리고 안현미 교수님의 격려를 들으며 다시 한번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한 간호를 제공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는 단순히 총장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4학년 학우들이 복음을 가진 간호사로 일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다짐을 선서하는 시간은, 4년간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저희이지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총장님,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각자가 만나게 되는 임상의 상황에서 복음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졸업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간호사로서 쓰임 받기 위해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졸업하는 4학년을 위해 특송과 영상 등으로 도움을 준 모든 후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졸업식



2018학년도 63회 졸업예배 및 전기학위수여식이 2018년 2월 6일 오후 2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간호학과 46명의 학우가 학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역량을 보인 학우에 대한 각종 시상도 이뤄졌다. 대한간호협회장상은 조연정 학우가 수상하였고, 한국간호과학회상은 장현아 학우, 간호학과 학과장협의회상은 신다인 학우, 대한기독교간호사회상은 김세현 학우, 미래국제간호인재상은 이지연 학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은 김지원 학우가 수상하였다. 간호학부에서 영예의 총장상은 박수요 학우가 수상하였다.

학교 발전기금 전달한 김조자 교수

간호학과 김조자 교수가 2018년 10월 학교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김조자 교수는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기숙사 간담회

2018학년 2학기에 간호학과 기숙사 간담회가 9월 6일 일립관 101호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안현미 학과장과 고미숙 교수 및 간호학과 기숙사생 39명이 참석하였다. 고미숙 교수는 “주변 학생들을 챙기고 잘못에 관해서 같이 인정하며 어려움을 뛰어넘어 더 나아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며 회의의 시작을 열었다. 회의에서는 학우들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의 기숙사 생활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또한 간호학과 기숙사 대표 문수빈 학우는 “기숙사 생활 중 궁금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각 학년 기숙사 대표에게 편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며 간호학과 기숙사생들 간 도움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끝으로 안현미 교수는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였으면 좋겠다. 기숙사 사람들과 인사 잘하고 음식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라며 기숙사생의 생활과 건강에 대해 언급하였다. 고미숙 교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실수가 최소가 되게 하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며 기숙사생들 간의 협력을 언급하였다.

1 학년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탐방

2018년 5월 17일 간호학과 1학년 49명이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으로 탐방을 갔다. 양화진 묘원에 도착하여 양화진 소개 영상과 선교사 소개 영상을 본 뒤, 선교사들의 묘역을 안내받았다. 장대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양화진 탐방을 끝내고 무사히 돌아왔다. 탐방이 끝나고 이연서 학우는 “사실 선교사라는 것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오셨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신 수많은 선교사분들과 그 분들의 업적을 보았을 때, 나도 누군가를 도와 주기 위해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채린 학우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반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셨다는 사실이 매우 새로웠으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은혜로웠다. 또 어린아이들의 무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신편입생 예비대학 “움툼”

201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1차 신편입생 예비대학 움툼을 진행했다. 간호학과 신입생 49명, 일반 편입생 4명, 의료 편입생 1명이 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오전에는 조별로 ‘도전! 슈퍼모델 KBU’를 진행하여 서로의 개성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교내를 돌아다니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새싹 전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과별 모임 시간에는 교수님 소개와 MBTI 성격 유형 검사 후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였고 이후 한층 더 친해진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에는 로고스홀에 모여 성서인 서약식을 하며 한국성서대학교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에는 선배들이 수강신청 방법과 교육과정 안내 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며 1박 2일의 예비대학을 마쳤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변선우 학우는 “처음에는 많이 긴장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학교 시설을 알게 되어 좋았다. 특히 학과별 모임 시간 때 선배님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와 수강신청과, 교양 수업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매우 도움되었다”고 말했다.

간호학과 후배에게 전하는 선배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2회 졸업생 조혜련입니다. 저는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병원에 입사하였고 작년에 피지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병동은 내과, 외과 병동으로 사실상 병원의 거의 모든 과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양한 환자들을 모두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어라!”

앞으로 임상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 보호자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간호사에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심하게 화를 내는 등 거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신규 때는 속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했나” 라며 속상해 했는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흘려 넘길 수 있는 내공이 생기더라고요! 신규시절 병원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너무 쉽게 퇴사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연차가 쌓이다 보면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된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주위 선생님 또는 수 선생님께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퇴근과 동시에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내 정신건강에 좋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취미생활을 만드세요”

삼교대 근무가 은근히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답니다. 저는 쉬는 날을 이용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친구들과 맛집, 카페 탐방, 야구경기를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학 동기 중에는 방송댄스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사진 동호회에 들어가서 스냅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을 배우는 동기들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내 몸이 먼저 건강해야 환자도 간호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받은 신학수업, 채플, 수요전도, 기숙사 새벽예배 등 학생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훈련들이 제가 사회에 나와 삼교대를 하면서도 주일을 지키고, 힘들 때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 귀한 대학 생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시고 더 많은 경험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후배들과, 교수님, 그리고 학교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상실습 후기 ”

3 학년 기상혁

Q. 임상실습에서 배운 점과 보람찬 점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습 중에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fusion pump 작동법을 배우고 환자에게 적용해보는 등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수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막연해서 간호학을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실습을 다녀오고 난 후 수업을 들을때나 공부를 할 때 실습을 통해 경험한 상황이나 환자들을 생각하고 적용해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습 중에 여러 환자를 볼 수 있었는데 수술을 하신 분이나 응급 상황으로 오신 환자들이 간호사들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고 잘 걸어다니시고 퇴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실습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 이름을 들으시더니 할머니의 손자도 우리학교 간호학과를 다닌다고 하시면서 반가

워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세상은 좁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 매사에 성실히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실습 할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상황마다 어떤 처치를 하시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정규 활력징후, 혈당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가 있을 시 바로 선생님께 보고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에게 투약, 정맥 주사 등 기본간호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환자에게, 실습생들끼리 적용해보기도 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실습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적극적이고 성실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을 더 좋아하시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2 학년 임종우



대학교 입학부터 현재, 2학년 2학기까지 전공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임상실습 I 에 적용시켜 이론으로만 알았던 전인적인 접근을 상기하며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실습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것이 “이론의 적용” 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건강사정을 하는 것과, 나이대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법 등 복습과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습지에 가서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율실습과 기관실습, 건강사정 연습을 통해 나이대별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면서 대상자에게 맞는 방법인지,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꿈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있을 3학년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감정만 느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처음 느낀 감정은 걱정이었습니다. 2학년 2학기,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실습을 앞두고 잘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때 선배님께서 말해주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처음에는 누구든지 부족하고 서툴러.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잘할 수 있을거야!”라는 덕담이 큰 힘과 도움이 되었고 걱정이 기대가 되어 임상실습 I 을 무사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만 비전 트립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7학번 강재현입니다. 겨울에 중동의 '오만'이라는 국가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Q.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식당 쪽에 있는 학교 게시판을 심심할 때 자주 보는데 어느 날 A4 용지에 오만 비전 트립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있었어요. 학교 홈페이지 공지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서 흥미를 갖고 보다가 프로그램 구성이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값진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감 하루 전날 급하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비전 트립을 다녀온 후 느낀 점 말씀해주세요.

작년 겨울방학에 갔다 왔는데 그 때 MERS가 한 번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상태여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제가 중동지역을 탐방하러 가는 것을 조금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꼭 중동지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또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얘기하면서 중동지역 사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도하며 비전 트립을 준비했습니다.

오만 비전 트립은 앞서 말했다시피 여행과 선교가 어느 하나의 특성이 강하지 않고 잘 어우러진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이었기에 저의 대학생할 중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제 삶의 진로에 대한 큰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의료담당을 맡았습니다. 1학년이었고 많은 지식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사용해주시면서 제 진로의 큰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만에 도착하자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갑자기 몸살이 나기도 하고, 조금씩 다치기도 하고, 낙타 주변을 거닐게 되면서 MERS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도 생기는 등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소지하고 있던 최소한의 상비약들로 팀원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고, 갖고 갔던 의료도구들이 모두 활용되고, 휴대용 손 소독제로 수시로 팀원들을 소독하여 그들이 저에게 고마워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 지역을 여행하면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와디삽의 풍경, 니즈와 Al hazar mountain의 경치, 11박 12일 동안의 다양한 오만 지역 체험 등이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저에게 꼭 필요했던 좋은 시간을 선물해준 오만비전트립을 장학생으로 갔다 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저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을 매우 많이 느껴 앞으로 제가 배울 것들이 실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며 학과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Faith Training>

간호학과 1학년 김승은

F.T.는 아직은 어색했던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또, 처음 만나는 전도반 분들과도 알아갈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대학에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다. 설교시간에도 영화를 이용해 설교를 해주셔서 더 이해가 쉬웠고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틈틈이 진행되었던 레크리에이션과 게임들도 F.T.를 유익한 시간으로 만드는 데에 한 몫을 차지한 것 같다. 이제 3번의 F.T가 남았는데 앞으로의 F.T.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호학과 1학년 이슬강

F.T.에 참가하며 내가 처음 느꼈던 감정은 어색함이었다. 나에게 이러한 수련회는 익숙치 않은 일이었으며 같이 갈 학우들과도 만난 시간이 적어 친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F.T.는 나의 이러한 고민들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으며 학우들과 여러 활동으로 친밀해질 계기 또한 만들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F.T.를 통해서 나는 신앙심과 학교생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밀알훈련>

간호학과 1학년 김보민

일단 선배들한테 밀알훈련이 되게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핸드폰도 3일 동안 안 해보니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매일 저녁 산 기도 시간에 직접 친 텐트에서 학우들,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며 풀 소리, 숲 소리를 들으니 좋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간호학과 1학년 유기선

40도까지 올라갔던 무더운 여름, 작년에는 고3 이어서 즐기지 못했던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던 나에게 밀알훈련은 너무나도 가기 싫은 프로그램 이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다. 노동훈련을 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투덜대면서 낫질을 하다가 요령을 익히게 되니 은근 재미있었다. 각홀산 정상에 올라간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한 일 중 하나였다. 정상에 올라가니 안개가 자욱했지만 곧 바람이 불어 안개가 걷히면서 푸른 나무들과 밭들이 보이는 모습이 나를 감동받게 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성서대학교 교직원분들 그리고 내가 정상에 올라 갈 수 있게 도와주신 예비중대장님께 감사하다.

동아리 소개

당현사랑

당현사랑 동아리는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의 의료 봉사 동아리로서 서울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어르신 분들의 건강 체크 및 보건교육, 한국성서대학교 학우들의 혈압, 혈당, 인바디 측정 및 보건교육, 당현천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보건교육, 동아리 회원 간의 친목도모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의료계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안녕하십니까!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는 성서대학교 아가페입니다.

백서탐방

백서탐방은 담당교수님들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4 년동안 대학생 권장도서 100 권을 읽고 토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책을 읽으면서 지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비판하는 훈련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동아리원들은 백서탐방을 통해 간호사의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어 미래의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편집부

편집부는 간호학과의 소식을 전하며 공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간호학과만의 소식지 '일립간호'를 만듭니다. 학과 내 행사 시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이나

국제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관심을 가지며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외적 보건분야에 관한 다양한 탐구와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간호학과 주요연혁

- 2018. 11. 제 7 회 간호학술제
- 2018. 8. 학과장 안현미 교수 취임
- 2018. 5. 제 7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8. 3. 간호학과 9 회 입학생 49 명 입학
- 2018. 2. 제 5 회 졸업생 46 명 배출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7. 11. 제 6 회 간호학술제
- 2017. 5. 제 6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7. 3. 간호학과 8 회 입학생 59 명 입학
- 2017. 2. 제 4 회 졸업생 44 명 배출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6. 11. 제 5 회 간호학술제
- 2016. 5. 제 5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6. 3. 간호학과 7 회 입학생 55 명 입학
- 2016. 2. 학과장 김정숙 교수 취임
- 2016. 2. 제 3 회 졸업생 43 명 배출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5. 11. 제 4 회 간호학술제
- 2015. 5. 간호학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간호교육기관 획득
- 2015. 5. 제 4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5. 3. 간호학부 6 회 입학생 51 명 입학
- 2015. 2. 제 2 회 졸업생 37 명 배출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4. 11. 제 3 회 간호학술제
- 2014. 4. 제 3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4. 3. 간호학부 55 회 입학생 52 명 입학
- 2014. 3. 학부장 최은희 교수 취임
- 2014. 2. 제 1 회 졸업생 20 명 배출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3. 11. 제 2 회 간호학술제
- 2013. 4. 제 2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3. 3. 간호학부 4 회 입학생 57 명 입학
- 2012. 11. 제 1 회 간호학술제
- 2012. 4. 제 1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2. 3. 간호학부 3 회 입학생 48 명 입학
- 2011. 8. 한국간호과학회-한국성서대학 고등학술대회 개최
주제 : '생행동 연구와 다학제적 접근'
- 2011. 3. 간호학부 2 회 입학생 47 명 입학
- 2011. 9. 2011 년도 간호학부 신입생 20 명 증원 승인 (정원 45 명)
- 2011. 3. 초대 학부장 장인순 교수 취임, 김조자 특별초빙교수 초빙
- 2010. 3. 간호학부 1 회 입학생 25 명 입학
- 2009. 11. 간호학부 신설 (입학정원 25 명)

교수 동정

고미숙 교수

BLS Instructor(대한심폐소생협회)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김정숙 교수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
논문심사위원
간호행정학회지 논문심사위원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강사
서울의료원 시민의원회

김조자 교수

본교 간호학부 특별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제 46 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2017)

안현미 교수

국제한인간호재단 홍보이사
국제보건의료학회 교육위원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이사

이소정 교수

다문화건강학회 대외협력이사 및
논문심사의원

장인순 교수

한국산업간호협회 이사 및
홍보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이사 및
총무이사
한국학교보건학회 홍보이사
한국간호과학회 JKAN 심사위원
지역사회간호학회지(KCI 등재지),
한국학교보건학회지(KCI 등재지),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KCI 등재
지) 등 논문심사위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최은희 교수

대한간호협회 홍보위원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실시기관관리 분과위원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과정 심사위원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서기이사
대한간호학회지(SCIE, SSCI 등재지) 논문심사위원
임상간호연구(KCI 등재지) 논문심사위원
재활간호학회지(KCI 등재후보지) 논문심사위원
중환자간호학회지(KCI 등재후보지) 논문심사위원
병원간호사회 보수교육 강사
BLS Instructor(대한심폐소생협회)

편집부원 소개

- 디자인 및 전체 편집
: 오히주
- 사진 촬영
: 오히주, 김예인, 현지민, 홍영은, 김유진, 변선우
- 기사 작성
: 김유진, 홍영은, 현지민, 오히주, 오현정, 윤예원,
변선우, 이어진, 이웅기, 이승주, 허선, 김혜선,
조우준, 안민호, 허민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사무실 : 02-950-5511

02-950-5521

Fax : 070-4275-0163



반세기를 걸어온 믿음의 세상으로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